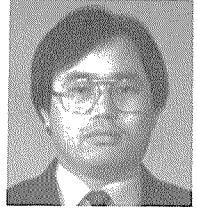


부산지역

윤락여성 현황 및 성병검사결과 역학조사



김성대

1. 서론

우리 나라에서는 일제 시대 공창 제도와 해방 직후의 사창 행위를 통하여 윤락 행위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6.25 동안의 계기로 하여 급작스러운 사회 혼란 및 경제적 빈곤, 미군 진주와 더불어 직업적 윤락 행위가 성행되었고, 성 도덕의 퇴폐 풍조로 인하여 윤락 여성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국가에서는 성병을 제3종 전염병으로 지정하였고, 1961년 윤락 행위 방지법 및 1969년에는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공포하여 성병에 대한 범위 대상자 규정과 더불어 성병관리를 계속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성병은 근절되지 않고 사회 문제로 남아 있어, 1977년 의료보호사업 실시와 특수 업태부 및 상습적으로 윤락 행위를 하는 윤락 여성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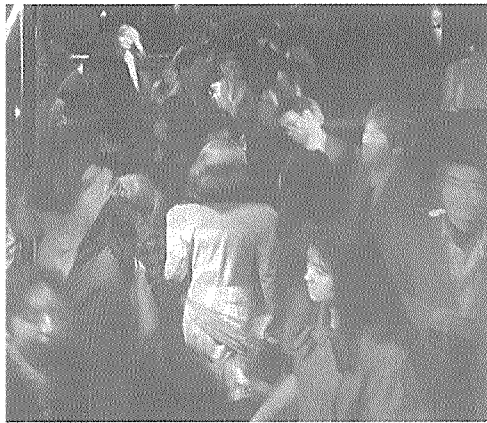
검진 사업을 수행하고자, 윤락 여성 인근 지역에 성병 진료소를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 방침에 따라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에서는 부산시 관내 윤락 여성 밀집 지역에 진료소를 개설하여 검진 사업을 수행해 왔다. 부산시지부에서는 검진 사업시 조사한 설문 내용을 가지고 그 동안의 윤락 여성의 제반 특성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이 앞으로 윤락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검진 사업에 효율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그 내용을 보고하고자 한다.

2. 본론

가. 조사 대상 및 방법

1986년 부터 부산시지부에서 검진 실시한 윤락 여성 135명을 대상으로 일정한 설



윤락여성의 연령분포는 20세~50세 사이였으며, 26~30세가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문 조사 양식에 의하여 개별 면담 설문 조사한 현황과 1987년 1989년의 3년간에 걸친 각종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하였음.

나. 조사 성적

1) 윤락 여성의 현황

가) 연령

20세에서 50세 사이였으며, 26~30세(42.9%)가 제일 높은 분포도를 보였고, 평균 연령은 28.2세였다.

나) 교육 정도

국민 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다양하였으며 중졸 및 고졸이 각각 37.0%로써 제일 높았고, 국졸 17.0%의 분포도를 볼 수 있다.

다) 윤락 행위 종사 기간

1개월부터 9년까지였으며, 1년 미만이 24.4%로 제일 높았고, 6년 이상도 4.4%가 되었다.

라) 윤락 여성 생활 거주 지역

지정된 집단 거주자가 49.6%였으며, 그 외 윤락 여성은 집단 거주지역을 벗어나, 부산 지역 전역에서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마) 윤락 여성의 윤락 전 직업

윤락 전의 직업은 회사원, 술집 및 다방 종사자, 무직, 가정 주부 등 다양한 직업을 볼 수 있으며, 회사원이 40.7%로써 가장 높은 분포도를 보였다.

바) 윤락 여성의 첫 성교 동기

첫 성교 동기는 연애, 난봉, 결혼, 강간 등을 들 수 있으며, 연애가 61.4%로써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사) 첫 성교 연령

17세부터 27세이며, 20세 미만이 22.9%, 21~22세가 56.3%를 제일 높은 분포도를 나타냈다.

아) 첫 성교 상대

첫 성교 상대는 애인, 결혼에 의한 남편, 회사 동료 직원, 친척 오빠 등 다양하였으며, 연애인 경우가 60%로써 제일 높은 분포도를 나타내었다.

자) 흡연 및 음주 유무

담배를 피우는 경우가 93.3%로써 대다수이고, 하루 20개피 이상이 47.4%로써 제일 높았으며, 술은 전혀 못하는 경우가 37.0%이고 그 외는 다양한 주량을 볼 수 있다.

차) 1일 수입 및 월 저축

1일 수입이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0만원으로 다양하며, 7~8만원이 31.1%로 제일 높았으며, 월 저축은 10~100만원 사이였으며, 저축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19.5%)도 볼 수 있다.

카) 성병에 대한 상식 및 치료중일때 성관계

성병에 대한 상식도는 잘 알고 있다가 7.4%이며, 잘 모른다가 57.8%를 나타내고, 치료중일때 성 관계는 쉬고 있다가 10.44%, 계속 관계한다가 82.2%로 나타났다.

타) 윤락 여성의 유산 경험

유산 경험이 있다가 71.1%였고, 1회에서 6회 이상 다양하였으며, 1~2회가 23.7%로 제일 높은 분포도를 나타냈다.

2) 검사 결과 역학 조사

가) 연도별 검진 현황

'87년 1월부터 '89년 12월까지 3년간 총 검사자수는 41,257명이고, 그 중 낙검자수는 3,069명(7.44%), 월 평균 85명, 주 평균 21명의 낙검자가 발견되었다.

나) 질환별 낙검자수

'87년 및 '89년도 총 검진자 27,088명에 낙검자 1,874명 이었고, 그 중 STD검진자 24,934명 중 임질 482명, 비임질이 267명이었고, 매독 혈청 검사 2,154명 중 양성자 125명을 볼 수 있다.

다) 계절별 검진자 및 낙검자

계절별 평균 검진자수는 봄이 203명, 여름 210명, 가을 193명, 겨울 169명이었고,

윤락 여성들 중
간 질환을 가진 사람은
13.5% 나 되며,
이것은 일반인들의
유병율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낙검자는 STD검사에서 겨울 9.52%, 매독 검사에서 여름이 7.05%로 가장 높았다.

라) 연도별 매독 혈청 검사 결과 양성율

혈청 검사(정량) 양성율은 '87년 7.1%, '88년 5.6%, '89년 3.9%를 나타내었다.

마) 연도별 STD 검사 연간 반복 낙검자 수

'87년 및 '89년, 2년간 STD 총 검사자 24,934명 중 낙검자수 1,749명(7.04%)이었고, 임질 1.93%, 비임 5.08%의 낙검자 중 반복 낙검자는 1회에서 10회까지 나타났다.

바) 윤락 여성의 간염 및 간기능 검사 결과

이번 설문 대상자 중 192명을 대상으로 간염 및 간기능 검사를 실시해 본 결과 Hbs-Ag(+) 9명, Hbs-Ab(+) 108명이었고, 간기능 이상자는 26명(13.5%)로 대체적으로 높은 현상을 볼 수 있다.

다. 고찰

현재 부산 각 지역내 총 윤락 여성수는 약 3,000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윤락여성수는 약 300명 정도이다.

이곳 윤락 여성들을 선도·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검진을 실시해오면서 윤락 여성들의 제반 현황 및 4년간의 검사 결과를 관찰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년령 분포는 20~50세 사이의 연령층으로서 26~30세 사이가 42.9%로 대부분

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윤락 여성중에는 저연령층 및 고연령층도 다수 있으며, 교육 정도는 국교 졸업부터 대학졸업까지 다양하지만, 중졸 및 고졸 중퇴자도 각각 1.4%, 5.92%로써 이것은 우리 나라 교육이 경제적 수준과 연관시켜 본다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된다.

○윤락 행위 종사 기간은 1년 미만인 24.4%로 제일 많으며, 3년 이상 장기간 윤락 행위를 하는 여성도 많았다. 나이가 많은 윤락 여성들은 윤락 행위를 청산하고, 타 직종에 종사하다가 다시 윤락 행위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의 거주 지역은 집단 지역외에 거주하는 윤락 여성이 50.4%로 그 가운데 친구 거주자가 42.2%로 제일 많았다. 그 이유는 집단 지역의 인근지역으로 교통이 편리하며, 미군 부대를 대상으로 호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윤락 행위 목적이 생계 유지 또는 단순한 윤락목적인지는 연구 과제이다. 윤락 전의 직업은 회사원이 40.7%로 제일 많았고, 술집 및 다방 종사자도 22.2%로, 이들은 가출 여성으로 윤락 행위전부터 난교의 분포도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그러나 그들의 다방 및 술집 이전의 직업은 밝히지 못했다. 가정 주부는 사별 또는 이혼으로 윤락 행위 원인이 생계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첫 성교 동기는 결혼에 의한 8.14%를 제외하면, 연애 및 난봉으로써, 혼인의 성



윤락행위의 목적이 생계 유지 또는 단순한 윤락 목적인지는 연구과제이다.

관계가 전체 90.3%임을 볼 때, 성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2세 이전이 79.2%로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첫 성교 연령이 빠르며,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성 교육 미비라 볼 수 있다.

○흡연자는 조사 대상자 중 93.3%이며, 그중 하루 2갑 이상이 65.8%로 담배를 많이 피우며, 술을 마시는 경우는 44.5%를 나타냈다. 일일 성 상대자수는 평균 3~4명이고, 일일 평균 수입은 7~8만원이 31.1%로 제일 많았다.

○저축은 월 20~30만원이 20%로 가장 많고, 100만원 이상 고저축자도 11.1% 되었으나, 돈을 모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성병에 대한 일반적 지식이 결여 되었으

며, 낙검 후 성관계를 지속적으로 하며, 이것이 성병 관리에 커다란 문제라고 생각된다.

○유산 경험이 있는 윤락 여성은 71.2%에 해당되며, 심지어 40회 이상 유산경험자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피임 방법은 대다수가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 현황에 있어서 '87.1~'89. 12월 까지 낙검율은 7.44%였고, '87, '89, 2년간 임질, 비임, 매독의 양성율은 각각 2.64%, 4.93%, 5.72%였다. 관내 보건소에서 검사한 낙검자수 10.2%보다 상당히 감소한 것이며, 이것은 건강관리협회 성병검진팀의 체계적인 노력이라 생각된다.

낙검 윤락 여성수가 검진 인원에 비해 여름에 많이 떨어지는 이유는, 더운 날씨

부산에서 3년여의
조사결과, 성병검진사업은
사후치료보다는 사전
홍보와 철저한 검사를 통해
집단 예방차원에서 검진, 관리
한다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 본다.

에 목욕 또는 질 세척 기회가 많은 관계로
검진 직전 질 세척이 낙점자 수가 떨어
지는 원인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성병의 증
상은 줄어 들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성병의 유병율은 매년 감소 현상을 보이
며, 매독의 양성율은 '89년도 3.9%로 전국
매독 양성자 평균 8.4%, 부산 6.5%와 비
교해 볼 때, 집단 검진 체계가 성병 퇴치에
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86년부터 '90
년까지 5년간 매독 양성자수는 초산부 0.59
%, 중산부 0.86%, 한국건강관리협회 일반내
원자 0.56%로 볼 때, 아직까지 윤락 여성들
의 매독 양성율은 일반인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간주되고, 특히 일반인에게 매독
전파의 주 요소인 윤락 여성들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반복 낙점자 수는 임질 1~5회, 비임질
1~10회를 볼 수 있으며, 반복 낙점방지를
위해서는 본인 임의의 항균제 사용, 낙점
시 지속적인 성관계를 방지하며, 그리고
항생제 내성 검사를 실시한후, 적절한 투
약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매년 윤락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그 상태가 개선되고 있으나, 간 질
환자가 13.5%로,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유
병율 5.66%보다 높은 현상은 불규칙적인
생활 또는 계속적인 흡연과 음주로 볼 수
있다.

'88년 간기능 이상자 27%에 비해 '90년도
에 13.5%로 낮아진 현상은 매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 생각되었다. 전
염성 질환인 간염은 항원 4.68%, 항체 56.2
%로 일반 검사자 항원 4.68%, 항체 28.6%
보다 항원 양성율이 낮으며, 항체 보유율이 오
히려 높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3. 결론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에서 1987
년부터 1990년까지 검사를 실시해 오면서,
그 중 135명을 대상으로 한 윤락 여성 현황 조
사와 3년간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
병 검진 사업은 감염자 조기발견, 감염자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홍보 및 보건 교
육 자립 대처능력 고취, 검사 종목 추가(약
제 내성 검사)실시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검진 사업은 윤락 여성들의 특수
성을 감안할 때, 산발적인 검진진료보다 검
사 전문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지
역 여건을 고려, 체계적인 방법으로 윤락
여성 전체를 집단적으로 검진 관리한다면
향후 성병 퇴치 사업에 좋은 성과를 거두리
라고 본다. 72

〈필자=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직할시지부
검사소장〉